



## '89 제3차 이사회 개최

—원주, 홍성, 청량리, 김포채란분회 승인—



제3차 이사회가 지난 9월 20일(수)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성원보고, 회장인사, 전회의록 보고, 협회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승인건에서는 본회를 상정하는 협회기 및 약장(뺏지)의 모형과 규격 및 제작 방법을 복무규정에 삽입하고, 현행 규정에 위원회

소집을 회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분과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규정문안에 불합리하게 표기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키로 승인했다.

한편 업종별 분회 설치신청을 한 원주, 홍성, 청량리, 김포채란분회의 분회 설치를 승인했다. 이로서 본회 조직은 금년들어 이천과 천호채란분회 가입에 이어 4개 분회가 설치되어 5개 지부 17개분회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설치 승인된 분회는 다음과 같다.

### ○원주(지구 산란계) 분회

• 분회의 명칭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원주(지구 산란계) 분회

- 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275-145
- 관할구역 : 원주시, 원성군 일원
- 가입대상 : 본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할 구역내에서 채란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전화번호 : 0371)42-1293
- 회원수 : 20명
- 발기인 대표 : 김재철

### ○홍성(지구 산란계) 분회

• 분회의 명칭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홍성(지구 산란계) 분회

- 사무소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03
- 관할구역 : 충남 홍성군 일원
- 가입대상 : 본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할 구역내에서 채란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전화번호 : 0451)32-2873
- 회원수 : 22명(기존 본회 소속회원 2명 포함)
- 발기인 대표 : 강신구

### ○청량리 분회

• 분회의 명칭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청량리 분회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61

- 관할구역 :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양주군, 고양군, 파주군 지역 일부
- 가입대상 : 본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할 구역내에서 채관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전화번호 : 02)966-0310
- 회원수 : 27명(기준 본회 소속회원 19명, 신규 8명)
- 발기인 대표 : 이종선
- 김포지구 산란계분회
  - 분회의 명칭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김포지구 산란계분회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마송리 104-15
  - 관할구역 : 김포군, 강화군 일원
  - 가입대상 : 본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할 구역내에서 채관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전화번호 : 0341)987-3456
  - 회원수 : 25명
  - 발기인 대표 : 윤명준

###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개최 —갑종 61명, 고등 2명 합격—**

본회는 지난 8일 국제병아리감별학원에서 89년도 제1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을 개최했다.

이번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에는 고등시험에 6명, 갑종시험에 92명이 응시하였다. 이중 가격증 취득자는 고등 2명, 갑종 6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합격자
- 박성영, 정해송
- 갑종합격자

변국화, 강호신, 이용학, 노학규, 이래훈, 김종팔, 이병덕, 이금영, 신성영, 정구승, 여인엽, 권오영, 이창조, 홍기영, 김정득, 서봉균, 김성호, 이종찬, 박영환, 김명아, 김병태, 고제정, 이준엽, 최홍문, 김진우, 신장득, 안세희, 최달주, 우원, 정유순,

김유정, 박윤서, 이병락, 조광연, 최윤정, 신경화, 박홍백, 이동찬, 김용동, 장진앵, 최복규, 류재영, 이규상, 강민철, 차행자, 박준호, 박상선, 조인호, 정연석, 주경미, 정해송, 이동호, 안용규, 정현철, 송연희, 이병기, 공문성, 전영훈, 박봉식, 신승철, 류소라

### **닭고기·계란 홍보포스터 공모 심사 —우수작 3점, 입선 11점 등 총 14점 당선—**

본회가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홍보사업으로 실시한 “닭고기·계란 홍보 포스터 현상공모”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결정되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 총 53점이 응모했는데 1차 예심으로 9월 20일 본회이사 및 직원들이 심사한 작품을 그 이튿날인 21일 전문가들이 심사하였다.

2차 본심을 맡았던 김홍련 교수(동덕여대, 서울일리스트레이션협의회 회장), 김수경 사장(주식회사 디자인신문), 백금남 교수(성균관대, 현대실험작가 협회 회장)는 심사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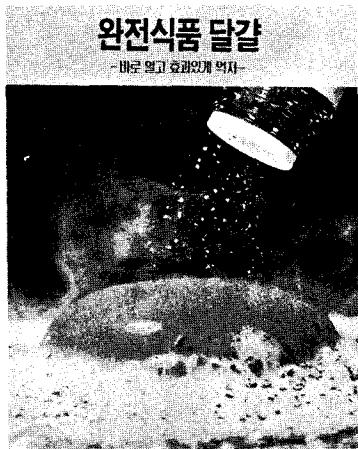
“대체로 작품 경향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아이디어, 레이아웃(lay out)에서 독특한 것이 없었다. 계란을 위한 포스터와 닭고기를 위한 포스터의 두 종류로 공모하였는데 계란을 위한 포스터가 응모작품도 많았으며 작품수준도 좋았다.” 최우수작이 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2차 본심) 전원 합의로 우수작 3점을 채택, 예산범위내에서 입상작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하여 우수상에 1점, 입선에 4점을 추가 총 14점을 입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닭고기요리솜씨대회 시상식 전에 거행될 예정이다.

본 입상 포스터는 앞으로 소비홍보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달걀의 우수성 홍보 책자 제작·배부



본회는 소비자들의 달걀에 대한 인식제고와 달걀의 영양가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자 달걀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한 “완전식품 달걀—바로 알고 효과있게 먹자—” 책자는 20페이지짜리 15×21 cm 크기로 5,000부를 제작했고 총 7편의 내용을싣고 있다.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상식으로부터 고혈압, 혈액순환, 건망증, 암 등에 관해 달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알기 쉽게 다루었다.

본 책자는 일본 주부의 베사(主婦の友社)가 발행한 “나의 건강” 중에서 발췌한 것을 오봉국(서울대학교 교수), 정선부(축산시험장 기금과장)씨가 감수하였다.

## 9월 편집위원회 개최

9월 편집위원회(위원장 임병규)를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본지 창간 20주년 기념호인 11월호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는데 창간 기념호에는 양계산업 진단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GP 센터, 계열화, 협동조합 등에 관해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 9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 장기불황 예고—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지난 27일 용인분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각 지역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시세가 머물고 있으며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육계시세가 생산비선으로 회복될 때까지 각 농장에서는 입추를 자제하기로 하며 비싼 병아리는 입추거부로 병아리생산이 감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육계인 단합대회를오는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와 병행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채란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병아리덤핑 자제키로—

채란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신홍종)은 지난 6일 9월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산란계 병아리가격이 폭락하고 덤핑 병아리가 유통되고 있는 중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병아리를 공급할 때 타 부화장의 병아리에 연계가 있는지 확인해 유통질서를 흐리지 말자고 했다. 계란가격이 좋은데도 병아리가격은 폭락하고 있어 스스로 생산비선 이하에서는 입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한 가을병아리를 대비해 환우계가 많았는데 환우계는 도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목면공장이 독점을 시작하면서 목면의 인상통보에 대해 적절한 가격인상이나는 토의가 있었으며, 불법농지전용, 공해시설, 방화벽 설치 등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이번 토의에서는 지금까지 양계업계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층이 있어

각종 법규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위해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규에 대해 확실한 개념정립을 해 나가기로 했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10월 12~13일 계룡산에서 단합대회—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추석으로 인해 앞당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고야 대학 교환교수로 1년동안 일본 양계산업을 돌아보고 온 오세정 교수의 일본 채란양계산업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한생 GP 사업을 인수한 한냉통상 김웅겸 사장을 초청하여 유통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한냉통상은 인수후 경영이 안정되고 있으며 6개월 후에는 1일 30만개씩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계란 유통업자도 생산자와 동고동락하면서 채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식품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현 5만수 수준에서 30만수로 확장하려 하고, 전북 고창군이 군민 소득증 대사업으로 100만수 규모의 계열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생산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모확장이나 신규업자 진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12~13일 월례회겸 단합대회를 계룡산에서 갖기로 했다.

### 부산·경남지부 추계체육대회 —10월 6일 김해공설운동장에서—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는 회원들의 단합대회 및 연관업계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 12회 추계친선체육대회를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부터 김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김포채란분회 현판식



그동안 김포지역 채란양계업자의 친목단체로서 역할을 해 왔던 김포계우회가 본회에 본회가입과 함께 김포채란분회(분회장 윤명준) 현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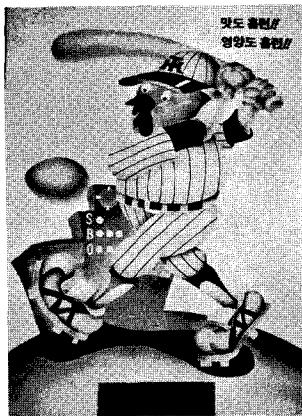
양계업계의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채란양계업자의 본회 가입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천호, 이천채란분회에 이어 금년들어 3번째로 본회에 가입하였다.

지난 4일(월) 거행된 현판식은 윤명준 분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이재식 이사(계유부화장) 등 김포채란분회 회원들과 본회 남두희 실장, 강재명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서 윤명준 분회장은 “채란양계업계의 단합을 위해 본회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김포채란분회가 업계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했다.

### 국내 양계 기계·기구업체 협의회 구성 —본회 주선으로 10월 4일 첫 모임—

본회는 양계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간에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시설자동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자재업체 상호간 이견이 나타나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으며, 양계장



닭고기·계란 홍보포스터 입상자 명단

입상명	성명	주 소	비 고
최우수상	해당 작품 없음	-	-
우 수 상	이은정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4-46	닭, 계란
우 수 상	이옥분, 홍석준	대전시 동구 가양1동 358-2	계란
우 수 상	최재훈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436-408	계란
입 선	김현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29-224	닭
입 선	박형권	서울시 성동구 군자동 45-10	닭, 계란
입 선	류자현, 정문영	대전시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103/902	닭, 계란
입 선	한창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장마아파트 나/401	계란
입 선	박영규	부산시 금정구 장진동 산 30 부산대 미술학과	계란
입 선	이수광	부산시 금정구 장진동 산 30 부산대 미술학과	계란
입 선	유의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9-4	계란
입 선	유진경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422-2	계란
입 선	최은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68-53	계란
입 선	전문익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주공아파트 86/405	계란
입 선	김병진	대구시 동구 대2동 1-652 4/4	닭, 계란
계	14점		

## 건축법 시행령 운용에 대한 질의 및 건의 -1,000m<sup>2</sup>이상 계사 방화벽 설치 개선건의-

본회는 지난 9월 9일 연면적 1,000m<sup>2</sup>이상인 건축물 방화벽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축법 적용이 계사 건축시 양축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건설

부와 농림수산부에 이의 개선을 요망하는 건의를 하였다.

양계업계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키 위하여 자동화 시설(금이기, 급수기, 집란기, 계분제거기, 환풍기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화시설을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계사규모를 2,000~3,000m<sup>2</sup> 이상으로 확장(신축 또는 증축)하여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sup>2</sup>이상일 때는 1,000m<sup>2</sup>이내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만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배양이란 양계업계의 노력과 정부시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 및 건의하였다.

계사는 대부분 개방식으로 건물 양쪽 마구리에 대형차가 통행할 수 있어 화재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화시설 설치를 위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계사도 자동화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므로 일종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공장에 준하여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본회의 의견을 질의하였다.

또한 위의 방화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고려하여 계사도 다른 운동시설 또는 집회시설, 공장 등과 같이 방화벽 설치대상 건물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 —농림수산부 건설부에 협조요청—

농림수산부는 본회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사는 방화벽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 —건설부 회신—

건설부는 본회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시설을 하는 양계장의 목적달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본회 의견제시

#### —개인농장 법인전환시 면세 요망—

본회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업계 건의에 관해 본회의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시했다.

양계업은 개인농장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담세하고 있다. 40~50개 양계장이 법인전환 계획을 갖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법인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축산업은 자산에 부동산 비율이 높으므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수산업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축산업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계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업, 전업규모를 탈피하여 기업화가 필요하므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세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축산업을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축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될시 관리체계의 이원화(농림수산부, 상공부)로 관리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 농민만의 고유업종이라는 축산업의 본질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축산법 및 제반 관련법을 보완하여 축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보호아래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저리융자, 세금감면)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다만 부화업은 세법상 축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생산업 보다 서비스업이라 생각되므로 부화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육계산업발전협의회 발족

#### —육계산업 안정적 발전 위해—

육계생산자와 업계,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를 기하면서 육계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현안문제를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강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육계산업 발전을 모색키 위하여 육계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본회가 주선하여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생산자 대표, 계열주체 대표, 관련학계 및 연구계, 유통전문가, 상인대표, 외식산업체 등 육계산업과 연관된 폭넓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장은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 회장, 부회장에 본회 장민기 부회장, 간사에 하림식품 김홍국 사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제도 및 시책, 수급조절, 유통구조, 소비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항을 연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원구성은 사료, 약품, 기계기구 등 폭넓게 분야를 더 보강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에게 위임키로 했다.

시설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양계 기계·기구업 협의회의 필요성이 기대되어 모든 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오는 10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첫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 개최 예정 —10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이 오는 10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2회 및 제23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검토와 제26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종계일반검정 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 협회 조직 및 운영개선방안연구 중간보고

본회가 한국가금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계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 조직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가금학회 오세정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세계 각국의 예와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구상한 3개 모델을 선정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2가지 모델로 합축하여 향후 협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양계업계의 중진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연구결과가 확정되면 4차 이사회에서 토론 후, 90년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동남아 육계산업 시찰단 모집

본회는 외국의 계열화 생산등 육계산업 전반을 시찰케 하므로 국제화시대를 맞는 국내 육계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육계산업 및 본회 발전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육계산업 시찰단을 모집한다.

### 다 음

- |                                |   |
|--------------------------------|---|
| 1. 참가대상 : 본회 회원 및 육계생산자        | 4. 모집기간 : 1989. 10. 1~18                                |
| 2. 시찰단 구성예상인원 : 20명 내외         | 5. 세부시찰계획   |
| 3. 시찰계획                        | ○시찰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 희망자가 15명 이상일 경우는 팀을 구성하여 세부시찰계획을 별도 확정 |
| ○일 정 : 약 7박8일정도(11월15일 축 국예정)  | ○참가희망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본 시찰계획은 취소됨.                         |
| ○시 찰 국 : 태국, 대만, 홍콩 등(3개국)     |   |
| ○소요경비 : 1인당 약900,000원(전액 자 부담) |   |

동남아 육계산업 참가 희망자는 본회 사무국 (전화 588-7651)으로 연락바람.